

# 소방서 견학

손석호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날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날

우리 삼촌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119 구급대원이다.

119 소방관이라고 하면 불길을 헤치며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우리 삼촌은 직접 불을 끄지 않지만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쓰는 119 구급대원이다.

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삼촌은 밤에도 출동을 한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많다. 그래서인지 삼촌의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할머니는 삼촌이 아침에 들어오면 서둘러 밥상을 차리신다.

“많이 피곤하지? 빨리 밥 먹고 자거라.”

오늘은 삼촌과 배드민턴을 하고 싶었지만 어젯밤 잠을 못 잤다는 말에 배드민턴의 ‘배’ 자도 꺼내지 못했다.

“삼촌, 소방차 타 봤어?”

아침밥을 먹는 삼촌 옆에 앉아 소방차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았다. ‘삐오삐오’ 하며 달리는 소방차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질문에 삼촌은 “오늘 소방서 견학시켜 줄까?”라고 말했다. 나는 삼촌의 말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삼촌의 어깨에도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았다.

삼촌이 일하는 소방서에 가니 왠지 긴장되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관들과 119 구급대원들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소방차 옆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계셨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출동을 두 번이나 하셨고 출동 때문에 아직 아침밥도 드시지 못하셨다며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반갑게 맞아 주며 소방서 구경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먼저 소방차를 보러 갔다. 소방차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빨간 소방차는 옆에 119라고 커다랗게 숫자가 적혀 있었고, 노란 무늬가 위아래에 그어져 있어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다. 삼촌이 준 119 모자까지 쓰니 내 모습이 119 대원들처럼 제법 멋져 보였다. 모자를 쓰고 소방차 앞에서 경례하며 사진도 찍었다. 삼촌이 자꾸 경례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해서 사진을 10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다.

소방차는 너무 높아서 사다리 같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 킁킁 대며 겨우 올라가 소방차 자리에 앉으니 높은 산에 올라간 것 같았다. 차 아래에 계시는 대원 아저씨들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였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입꼬리가 풍선을 단 것처럼 위로 쭈욱 올라갔다.

삼촌은 소방서에 있는 여러 차를 보여 주며 그 차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다 필요한 차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화기 분사 체험도 했는데 처음으로 해 보는 거라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먼저 소화기를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화재가 발생한 방향을 향해 호스를 잡고 손잡이를 아래로 꺾 누르면 된다. 간단하게 보였지만 처음에는 당황해서 호스가 위로 향하게 잡았는데 삼촌이 잘 알려 주어서 두 번째는 쉽게 성공했다. 삼촌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었다. 낫선 곳에 가면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몸을 최대한 낮추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탈출하라고 했다.

소방서 체험을 마치고 119 구급대원 아저씨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소방차와 119 대원 아저씨들을 보니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오자마자 우리 집 소화기를 점검했다. 삼촌에게 배운 것처럼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현관에 두고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소화기를 뒤집어서 딱딱한 소리가 나면 소화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집 소화기를 뒤집어 귀를 기울여 들어 보기도 했다.

화재와 안전사고는 예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준비해야 한다.

불조심! 안전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